



여주대학교

1993년 12월 1일 창간

The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News

여주대신문

교훈 **사랑 봉사 실천**

※ 교훈은 설립자 정동성 박사의 친필입니다.

제138호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교육부 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Y-TECH Vision 2030 마련, 혁신 도모해

우리 대학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각종 특수목적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장학금

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 장학제도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본교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보건 및 공학계열 특성화 강화를 위한 ‘Y-TECH Vision 2030’ 비전을 실천하고 있

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방향과 14대 전략과제를 마련,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Y-아우스빌동을 확대하는 등 학생 중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윤준호 총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그동안

우리대학이 실천하고 있는 학과 융·복합, 특성화 강화 사업, 해외교류,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더욱 잘 다져 실무중심 인재 육성 대학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 할로윈 축제 개최

지난 10월 24일 천연잔디구장에서 ‘Happy Yalloween’ 축제가 열렸다. 재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이 날 축제는 늦은 시간까지 떠들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행사를 주관한 26대 학생회는 외국의 문화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축제를 통해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 계단에서는 용마응원단과 SM nation 공연이 마련되었고, 천연잔디구장에는 빈백과 할로윈 소품들이 마

련되어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또한 농구장 주변에 마련된 푸드 트럭과 타로점,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부스도 준비되어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회에서 마련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에어팟, 닌텐도 등 다양한 경품행사와 코스프레 대회도 진행해 할로윈 파티의 재미가 한층 고조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주희 총학생회장은 “1학기 축전이 끝나 2학기에는 캠퍼스가 썰렁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 고

여주대신문에서는 학우들의

원고 투고 (자유 주제로 A4 1장 분량) ·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간 사 | 2007704@yit.ac.kr 또는

031)880-5498

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의 및 투고 바랍니다.

지면안내

1면 주요기사

- 자율개선대학 선정
- 해피 할로윈 축제

2면 교내

- Y리그 축구 및 피구대회
- 양재근 학우 챔피언 획득
- 체육부장단식 가져
- 물리치료과 나눔 봉사
- 치위생과 선서식
- 작업치료과 학술제
- 여주대학교 채용박람회

3면 교내

- 교내소식

4·5면 기획

- Y리그 이모저모
- HAPPY YALLOWEEN

6면 안내

- 학과소개

7면 수기

- 호텔관광과 어학연수
- 사회복지과 실습
- 가을이 오면

8면 문화

- 보령 머드축제
- 영화 ‘미 비포 유’
- 「모모요는 아직 아흔 살」
- 독자퀴즈

학보비 안내

※ 학보비는 『여주대신문』

제작에 쓰입니다.

학우들의 원고와 취재를 통해

제작되는 학보 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화장배 축구 및 피구대회



제7회 여주대학교 총동문화장배 축구 및 피구대회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인조잔디구장과 용마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재학생들의 건전한 스포츠 정신 함양 및 체력증진과 학과 간 단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강과 8강이 개최되었다. 23일에는 8강전을 시작으로 4강전 및 준결승전,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축구는 점전의 연속이었다. 4강부터 대부분 경기가 승부차기로 마무리되었다. 전기과와 스포츠·경호과의 점전 끝에 전기과가 우승을, 스포츠·경호과가 준우승을, 실용음악과가 3위를 차지했다. MVP는 한원

구(스포츠·경호)가 받았다.

피구는 박진감의 연속이었다. 매 경기 눈을 땔 수 없는 속도전이었다. 사회복지과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건강재활과, 보육과가 뒤를 이었다. MVP는 차민제(의료재활과 학과)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에는 이들 학과의 수상과 더불어 사회복지과 외 9개 학과가 참여우수학과상을 받아 총동문화 장학금 5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학생회와 총동문화의 추천으로 총동문화 장학금도 개인에게 수여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기 총동문화장은 “이 시간을 계기로 학생이 제일 큰 여주대의 자랑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육부 창단식 가져

지난 9월 19일 체육부(야구부, 축구부) 창단식이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윤준호 총장, 이국성 야구부 감독, 최기봉 축구부 감독 및 스포츠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본교는 체육부 창단을 시작으로 야구·축구 분야 인재들의 다양한 소질을 육성하여 한국 체육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육부 테스크포스팀(TFT)을 통해 △학업생활 지원 △프로 진출 및 진학 맞춤식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야구부를 맡게 된 이국성 감독은 “야구부 창단을 통해 인성을 겸비한 야구 인재 뿐 아니라 지역 유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기봉 축구부 감독 또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대학 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작의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국성 야구부 감독은 MBC 청룡



/LG 트윈스와 빙그레 이글스/한화 이글스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러시아 국제야구대회 국가대표 감독과 경희대 야구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최기봉 축구부 감독은 서울시청 축구단과 프로축구 유공팀(현 SK),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으며, 서울대신고, FC 서울 2군, FC 서울 U-18&U-15 등에서 감독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FC 서울 스카우트와 FC 오산 단장을 역임했다. 지도자 시절 정조국, 이청용, 손흥민, 기성용 등을 발탁한 바 있다.

물리치료과 뉴실버 동아리 농촌 재능나눔 활동

물리치료과 뉴실버 동아리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대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다.

물리치료과 뉴실버 동아리(지도교수 김현숙)는 2002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여주시 점동면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점동면 도리와 장안 3리 뿐 아니라 혼암리가 새롭게 선정되어 모두 3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물리치료

및 발마사지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여 근육통 및 관절통증 완화를 위한 습포제 도포 및 피부보습을 위한 마스크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는 1박 2일 동안 캠프를 진행해 3개 마을을 각각 방문하여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및 운동치료 프로그램과 구강보건 및 낙상교육 건강실천 프로그램, 발마사지 및 풍선아트, 네일아트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들께 손자 손녀를 대신해 즐거움을 나누며 큰 호응을 얻었다.

뉴실버 동아리의 2018년 농촌재능나눔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지자체의 요청으로 11월 말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2018년 찾아가는 청년 맞춤 채용박람회 개최

지난 9월 12일 본교 용마체육관에서 ‘2018년 찾아가는 청년 맞춤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심화되는 실업난 속에 취·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 청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획했다. (주)다비치

안경, (주)다니엘, 씬밸리호텔, 선인자자동차 등 4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600여명이 참여하여 구직신청과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취창업지원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스포츠·경호과 양재근, 세계프로킥복싱 헤비급 챔피언 차지



스포츠·경호과(학과장 김원식) 1학년에 재학 중인 양재근 학생이 9월 21일 울산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세계프로킥복싱 무에타이총연맹(WKMF) 대회에서 헤비급 챔피언을 차지했다.

남부권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총 13경기의 메인경기 중 6경기가 국제전으로 진행되었으며,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등에서 참여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양재근 선수가 카자흐스탄 드리트니 메가니코브를 1라운드 TKO로 물리치고 챔피언의 영예를 얻었다.

양재근 선수는 “경기과정에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경기였다.”며 “상대방이 균형이 무너질 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17회 치위생과 선서식 가져



치위생과(학과장 김설악)에서 예비치과위생사로서 박애와 봉사정신을 다짐하는 제 17회 치과위생사 선서식이 9월 19일 봉사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선서식은 윤준호 총장, 이선미 경기도 치과위생사회 회장을 비롯해 여러 교수진들과 치위생과 학우들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서생 87명은 임상 실습에 앞서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전문 치위생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편

수여 및 촛불 의식과 선서를 통해 다짐했다.

윤 총장은 “오늘의 사명감을 현장에서 잘 실천하길 바란다.”며 “진취적인 마음이 짐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할길 바란다.”고 축사를 건넸다.

한편 우리 대학 치위생과는 1996년 신설되어 매년 치러지는 치위생사 국가고시에서 95%이상의 합격률과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대상자별 구강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작업치료과 학술제 및 선서식

전문 의료인이 되기를 바라며 엄숙함을 다지는 작업치료과 선서식 및 학술제가 마로니에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선서식 및 학술제는 작업치료사 윤리 강령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시작으로 배지 수여와 국가고시 합격기원제로 오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오후에는 3학년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노인 치매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1,2학년의 국가고시 응원영상과 치료댄스 등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져 흥미를 끌었다.

열정적인 작업치료사로서의 삶을 약속하



는 이날 행사에는 이정원 학과장 및 교수진, 김영기 총동문화장, 재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해 격려를 더했다.

업무협약 이모저모

본교가 보건·과학 특성화 강화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 현재까지 12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과 학술교류를 약속했다.

2018년	7월 9일	육군 제8군단	2018년	9월 10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7월 18일	경기관광고등학교		9월 11일	육군 제15보병사단
	7월 18일	여주시장애인복지관		9월 13일	인천재능대학교
	7월 18일	헤슬리 나인브릿지 컨트리클럽		9월 14일	(사)JROTC연맹
	9월 4일	아주네트웍스		10월 10일	더화이트호텔
	9월 7일	주식회사 에코카		10월 12일	(주)앤앰퍼니

해병대부사관 학군단 입단식

지난 9월 13일 본교 용마체육관에서 해병대부사관 학군단 입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사관 후보생 27명과 학부모, 윤준호 여주대 총장, 이승재 교육단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준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병대 부사관으로서 전문지식과 전투력 함양과 질제, 숭선수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사관 후보생들은 앞으로 3학기 동안

전공과 별도로 해병대 출신의 교수들로부터 군사학 교육과 동계와 하계 입영훈련, 특기적성교육 등을 이수 받는다. 이 후 전원 해병대하사로 임관돼 4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한편, 여주대 해병대학군단은 2014년에 신설되어, 1기 26명, 2기 20명을 포함해 총 46명이 부사관에 입관했다.



6회 보건의료행정과 채용박람회 및 산학협력 체결식



보건의료행정과가 지난 9월 19일 수요일 대학본부 내 통선터에서 ‘제6회 NCS기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행정과의 채용박람회는 2013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한 학과 특화 행사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올해는 에스병원 등 25개의 산업체가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개인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입사를 희망하는 산업체 인사담당자의 면접을 보고, 산업체는 현장면접 후 우수한 인재를 현장에서 바로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Y-아우스빌동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산학협력 체결식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모 세종리더십연구소장 한글날 특강

박현모 세종리더십연구소장(사회복지과)이 지난 9월 한글날을 맞아 여주시에서 주관한 세종대왕즉위 600주년 기념 2018 세종대왕 문화제 책 나루터 책 잔치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특강에서 박 소장은 자신의 저서

‘세종처럼’과 ‘세종의 적술력’에 소개된 세종어록과 정신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박 소장은 이날 한글날을 기념해 24년 만에 세종대왕릉(영릉)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및 방문객과 함께 대왕의 숲을 거닐며 세종대왕의 소통과 현신의 리더십 강연을 쉬운 설명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김경섭 교수,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반도체시스템과 김경섭 교수가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섭 교수는 반도체 관련 기업자문과 연구를 진행하여 SCI 20편 포함 국내외에 총 7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자문하여 반도체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된 바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부터 발간한 인명사전 발간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공학, 과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인물이나 지도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 및 등재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을 수여한다.

2018년 찾아가는 청년 맞춤 채용박람회 개최

‘유학생과 함께하는 한가위 큰잔치’ 개최 학생회가 지난 9월 18일 추석을 맞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가위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한국 어학원과 본과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명절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학생 20여명과 재학생들은 본부 통

선터와 천연잔디구장에서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한복 체험, 백설기, 송편 나눔을 진행했다.

박주희 총학생회장은 “작년부터 진행된 한가위 행사를 통해 유학생과 재학생이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영상미디어과 산업체 초청 특강

방송영상미디어과가 지난 10월 23일 평생교육원 6강의실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Y-아우스빌동 학과 특성화 및 전공 직무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과 맞춤형 취·창업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강연은 취업인재 전문헤드헌터 포털기업 MJ플렉스의 김시출 대표이사가 초청되어, ‘변화무쌍하게 성장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에 대응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대표는 취업마인드, 미디어콘텐츠 산업세계의 트렌드와 채용동향, 실무요령 등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인 소개 및 취·창업의 기본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진태 학과장은 “이번 산업체 초청을 계기로 추후 전문 현장의 산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전공분야의 인식개선을 꾀하는 한편 현장과 학생들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Y-아우스빌동 의 취지에 맞는 현장취업보장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사랑 · 마음돌봄 캠페인 열어



학생상담지원센터(센터장 김정숙)와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임정희)에서 지난 8월 29일 대학본부 3층 통선터에서 ‘생명사랑 · 마음돌봄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우들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척도 검사, 생명사랑 응원 문구 공모,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안내 전시 등 다양한 체험부스에 참여했다.

학생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많은 학생들이 학생상담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구동차 사업설명회 및 공동개발 조인식 가져

지난 9월 14일 본교 산학협력단은 한국-중국-베트남 전기구동차 사업설명회 및 공동개발 조인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중국에서 진룽그룹 쉐다밍 회장, DYU그룹 제프리 회장, 란둥사 톰상 대표와 홍콩에서 윌리엄 왕 대표, 베트남에서는 Anh Giang 전 공안국장, TAN THANH사 THUC 대표(한국, 베트남 전기자전거 합작회사) 등이 참석해, 전기구동차 생산 및 개발을 위한 합작을 체결했다.

류기원 산학협력단장은 축사를 통해 “유일산업전자(주)의 전기구동차 프로젝트에 전기과, 자동차과, 반도체시스템과가 주축이 되어 모터 제어 분야, 전기구동차 차체 설계 및 개발 분야 등에 참여할 것”이라며 “상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한국, 중국, 베트남의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시장 개척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여주대의 자부심은 여러분입니다



Y리그를 마치며



기쁨은 함께



내 공을 받아라



몸을 날리다



이 순간은 내가 음바페



벌처럼 싸라



승리는 우리에게



응원은 교수님과



정정당당



저 공은 내꺼야



참과 방패



축구는 몸싸움



축구왕 슛돌이



피구는 사회복지과



환호성

HAPPY YALLOWEEN



여주대는 할로윈 중



좀 무섭나요



누가누가 잘했나



신과 함께



익스펙토 페트로눔



저 경품은 내꺼다



귀여움=가오나시



슬픔이 안녕



즐기는 자세



천지창조



축제=먹을거리



축제를 밝히며



학보사를 응원하며



준비 중에 한 컷

필리핀 바콜로드 연수를 마치며

이 박경옥 (호텔관광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 바콜로드로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단순히 1달동안의 어학연수였다면 이번엔 K-move 프로그램에 참가해 싱가포르 해외 취업을 위한 2달간의 연수였다. 다시 바콜로드를 마주할 생각에 괜히 마음이 설렸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숙소로 가는 동안 익숙한 바콜로드의 모습과 공기에 기억이 환기되어 반가운 마음이 먼저 왔다.

많은 것이 일 년 전과 같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이었다. 작년까지 있었던 선생님들은 많이 떠나 아쉬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움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곳의 많은 매력 중 가장 큰 하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날아와 같은 공간에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되었다.

처음에 어색했던 연수생들도 매일 붙어 다니다보니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공부는 작년과 같았다. 쉬는 시간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의 1:1수업과 1시간의 그룹수업 등이 진행되었는데 수업을 함께 있어 확실히 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 어색함과 두려움이 덜 했던 것 같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니 연수를 오기 전에는 외국인과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수가 끝나고는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또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전보다 영어가 더 잘 들리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와 '영어실력이 조금은 향상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평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느라 바빴지만 주말 동안은 잠깐의 꿀 같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학원 가까이 위치한 백화점이나 바콜로드 시내로 나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그 시간을 만끽했다. 가끔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야외활동에 참가해 수영장이나 온천, 바다 등으로 놀러 다니며 필리핀의 분위기를 마음껏 누렸다.

올해도 예전처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작년에는 룸메이트였던 대만 친구가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친해졌는데 올해도 오가며 마주친 사람들도 정이 들었다. 호텔 앞을 지켜주셨던 경비 아저씨들, 자주 다녔던 친해졌던 편의점 직원들, 매일같이 방에 모여앉아 수다를 떨며 맛있는 음식을 나눴던 베트남 친구들, 정말 착했던 대만 친구

들,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었던 중국 친구들과 항상 친절했던 일본 친구들, 한국에서 오셔서 더 정이 갔던 수녀님과 타 대학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호텔 방에서 내려다보였던 풍경이며, 파란 하늘과 야자수, 어딜 가든 친절했던 현지인들 또한 잊을 수 없다. 나에게 바콜로드는 이제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찬, 또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특별하고 고마운 장소가 되었다. 이 기억을 안고 나중에도 그곳에 가고 싶다.

실습을 마치며

이 조아라 (사회복지과)

실습은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160시간 진행했다. 실습을 위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첫발을 디딘 순간은 아직도 가슴이 뛰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여주 지역 장애인들에게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직업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또한 장애인식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한 주도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 장애인 복지에 제일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떨렸다.

실습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업에 실습생이 한 번씩 참여하게끔 구성되었다. 1, 2 주차에는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 기본사업과 장애인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장애청소년들과 동굴 체험, 목장체험, 물놀이 체험을 했고 체육 활동도 함께했다. 특히 체육활동 프로그램

은 내가 처음으로 작성 해본 계획서로 진행되었다. 게임을 통해 실습생들과 장애청소년들이 친해지고 신체를 움직일 때의 즐거움과 협동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진행과정은 실수가 많았지만 모두가 잘 따라주었고, 지도 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의 조언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갈 수 있었다.

기간 동안 기관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교육도 많이 받았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이었다. 활동지원사는 말 그대로 매칭 된 장애인 이용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보조하는 역할이다. 외출이 불편하면 같이 목적지까지 가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간호하기도 하며 말동무가 되어준다. 종종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해 활동지원사가 꼭 필요하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배정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실습은 최종 과제로 마무리되었다. 나의 과제는 여주시 복지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주시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을 조사했다. 비장애인들은 식당을 이용할 때 맛과 분위기 등으로 선택하고, 거리가 멀어도 쉽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어있는지는 기본이고, 화장실 공간은 넓은지, 좌식인지 테이블인지도 판단해야했다. 경사로가 있는 식당은 드물었고, 경사로가 있어도 너무 좁거나 경사가 심해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였다. 특히 장애인 화

장실이 있는 식당은 찾아볼 수 가 없었다. 과제를 하면서 나 스스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사회적 약자가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실습을 마친 후 색안경을 벗고 장애인을 보게 되었다. 장애인은 무조건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전공에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기자수첩

가을이 오면

한반도를 상징하는 여러 말 중 가장 흔한 것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이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보니 계절마다 특색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각 계절의 처음을 첫사랑을 생각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 중 제일은 봄과 가을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면서 이 계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짙어진다.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어느 새 뜨거움이 사라지고 선선함을 즐기는 찬나 겨울이 왔다. 10월부터 룽 패딩이 각종 포털 검색어를 장식할 만큼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언제나 단풍 때문이다. 가을은 무더위에 지쳐 있고 있던 감성까지 새록새록 살아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계절이다. 단풍을 보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아마도 사계절이 선물해 주는 자연의 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단풍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고 예쁜 감성을 선사한다. 가을이 오면 SNS에는 노랑과 빨간 낙엽 사진이나 역새와 갈대 사진이 주를 이룬다. 찰나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엄청난 교통체증을 견디며 산과 계곡으로 떠난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우리 대학이 위치한 여주는 가까운 단풍여행지가 많다. 우선 제일 가까운 곳은 캠퍼스다.

창의관 앞 줄 지어있는 은행나무는 가을을 손쉽게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동 삼아 교내를 한 바퀴 돌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 온갖 걱정이 사라지기도 한다.

단풍은 보고 싶지만 교통체증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추천한다.

고궁은 어느 시기 방문해도 좋지만 특히 가을철이 좋다. 서울에 위치에 접근도 매우 용이하다. 가을에 경복궁을 간다면 향원정을 반드시 보아야한다. 단풍으로 둘러싸인 향원정은 물가에 비친 광경으로 두 번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창덕궁은 오래전부터 가을에 인기 많은 장소이다. 예약제로 방문할 수 있는 후원 덕이다.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움은 각종 드라마나 영화, 광고 촬영지로 자주 활용 될 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의 젊음은 한창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자주 아프고, 좌절한다. 가을은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해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아직은 간신히 끝자락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 가을,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단풍놀이를 하며 가을을 배웅해주면 어떨까?

이 강지훈 기자

■ 어디까지 가봤니?

보령 머드축제 ... 여름을 생각하다



사진출처 |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

서늘하다 못해 춥다. '가을이 왜 이런거야'라는 한숨만 나온다. 쌀쌀한 날씨에 롱패딩을 꺼낸다. 추워지니 무더웠던 여름이 그리워지기까지 한다. 겨울을 맞아 여름을 생각한다. 올 여름은 폭염에 즐기지를 못했다. 여름의 꽃은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가면 오히려 온몸이 타 녹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름을 생각하며 그 뜨거운 바다를 떠올린다.

많은 바다 축제가 있지만 그 중 제일은 충남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다. 흔히 보령 머드축제라고 알고 있는 이 축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바다와 머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다. 아이들은 전용공간이 따로 있어 가족단위에게도 호평이 높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드를 실컷 묻히고 놀다 바다로 달려 나가면 자동으로 머드가 씻긴다.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신나게 노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머드축제를 구경하며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고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MT의 명소이기도 하다.

머드축제를 즐기기 위해선 한 가지 팁이 있다. 귀마개와 헌옷을 챙겨야한다. 나의 소중한 달팽이관을 지키기 위해서다. 맵시를 뽐낸다고 래쉬가드와 비키니를 입으면 큰 봉변을 당하거나 하루 입고 버려야할지도 모른다. 머드(진흙)가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축제의 순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와 휴대폰을 준비한다면 방수 팩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머드는 피부수분조절, 진정작용 등 피부재생에 유익한 성분이 많다. 피부도 가꾸고 여름도 만끽하기 위해 미리 내년을 준비하자. 내년 무더위는 머드와 함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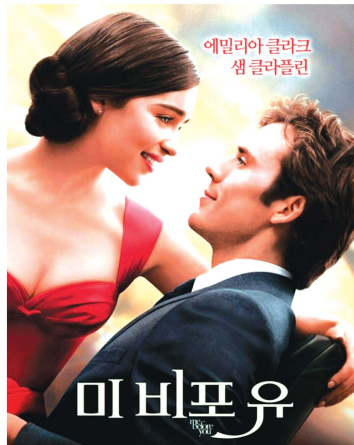
이명성 기자

■ 문화산책

죽음의 의문을 던지다

영화 '미 비포 유'의 외피는 말랑한 로맨스다. 여자주인공 루이자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대학에 붙었지만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카페에서 6년간 일한다. 문제는 카페가 문을 닫게 되면서 시작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루이자는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는다.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였지만 전신 마비 환자가 된 남자 주인공 월의 병간호다. 처음엔 서로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미 비포 유'는 '당신을 만나기 전의 나'라는 말이다. 로맨스라는 외피를 걷어내면 '존엄사'라는 죽음에



사진출처 | 미비포유 블로그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는 영화이다. 사실 영화는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다. 존엄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영국과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루이자의 6개월 일자리는 사실 월이 존엄사를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이다. 그의 부모님이 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선물같이 마련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죽음에 대해 대립하는 연인에게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월은 말한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사는 게 삶에 대한 의무예요." 죽음까지도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소중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인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면서 그를 이해하게 만든다.

사실 존엄사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영화보다 원작이 뛰어나다.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본다면 하지만 상상하던 배경이 펼쳐지며 주인공들의 삶에 한층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 가을 밤 사랑과 죽음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다면 이 영화와 책을 추천한다.

이정윤 기자

■ 책을보다

『모모요는 아직 아흔살』

모모요는 다른 이들과 달리 개성이 보이는 할머니다. 몸과 마음이 강하다. 야구나 스모 경기도 자주 챙겨보며, 스포츠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다. 저자이자 모모요의 외손녀 무례요코는 이런 할머니와 경기를 보면 해설자가 옆에 있는 거 같다고 말 할 정도이다. 불의에 분노하며 할 말을 다 하기도 한다. 긍정적이고 따뜻하며 열정적이지만 성깔도 있는 할머니인 것이다.

책을 읽을수록 할머니가 그려진다. 유치원 시절 작은 음악회에 오셨던 모습, 병원에 누워 계셨던 할머니에게 형제들과 노래를 불러드렸던 기억, 몰래 과자를 챙겨 손에 쥐어주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모모요는 언제나 소녀였다. 우리의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귀하게 자란 한 가정의 딸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모모요는 모든 가족들에게 한 그루 나무의 그늘 같은 존재였다. 가족들이 느낀 모모요의 그 따스함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책을 읽는 동안 모모요가 내 곁에서 햇살을 함께 쬔 것 같았다. 그늘 안 시원함을 느끼며 하늘을 보고, 햇살의 따스함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여운이 담긴 책이다. 책을 덮고나니 내 주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엄마와 할머니가 모모요 마냥 사랑스럽다. 우리도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순간이 찬란한 햇빛 같으리라 생각된다.

이최시원 기자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존감 있게 살아온,



여전히 귀엽고 호기심 충만한 아흔살 할머니의 인생

사진출처 | 미비포유 블로그

■ 독자퀴즈

1. 26대 총학생회장 이름은?
2. 총동문회장배 축구 · 피구대회 우승학과는?
3. 해병대학군단 입단식 후보생은 몇 명?
4. 10월 10일 맺은 업무협약 기간은?
5. 『모모요는 아직 아흔살』의 저자는?

★ 2007704@yit.ac.kr 또는 '여주대학교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응모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채택된 학우에게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 학과, 이름, 연락처 중 하나라도 미기재시 신문확인 불가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137호 독자퀴즈 당첨자 |

박하연(간호학과), 박현민(간호학과), 허우정(작업치료과) 박찬진(실용음악과), 조민호(전자과)

제20회 문예대상 공모

분야 | 시, 수필, (A4 2매) 소설 (A4 6매)

기간 | 2018년 11월 1일(월)~16일(금) 17시

방법 |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페이스북 '여주대학교 학보사'에서 확인

문의 | 학보사 (031-880-5498)

주관 | 여주대학교 학보사, 교수학습지원센터

미래를 이끌어 갈 학과를 소개합니다

|| 반도체시스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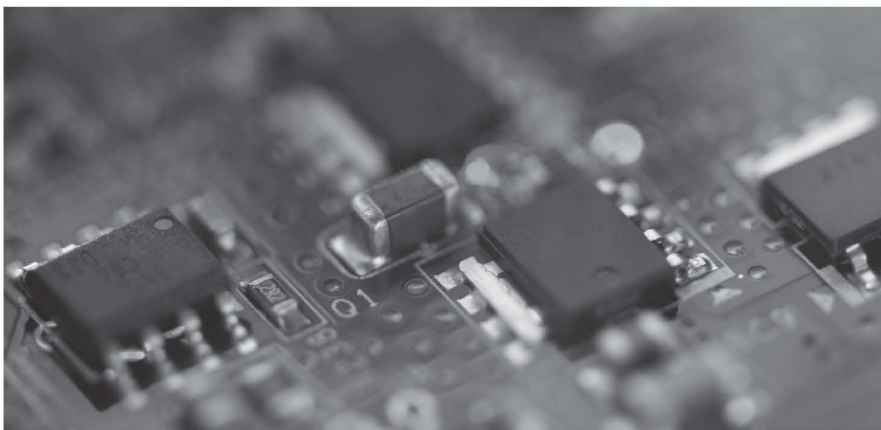
4차 산업의 주역인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하이닉스 등 탄탄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자랑한다. 반도체물리, 기초전기공학, 마이크로 전자회로실험, 반도체소자실험 등을 배운다.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

수기능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SMT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 및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LED 관련 소자제조 등의 기업으로 취업 가능하다.



|| 무인항공드론과

군사학부에 소속되어 무인항공기 및 멀티콥터(드론)운용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무인항공기기술개발, 무인항공기정비 등을 교육한다.

학내 무인항공교육원과 연계하여 국토부 무인항공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육·해·공군 무인기운용 군 간부 및 육군 드론

봇 전투단 간부로 진출하거나 무인기 및 드론 개발운용 민간업체에 취업 할 수 있다. 취득 자격증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증(회전익, 고정익), 드론교육 지도사, 드론 지도자 1,2급, 무선통신사, 항공산업기사 등이 있으며, 군부사관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 지능로봇과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휴먼인터페이스, 사물인터넷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 산업 및 서비스용 지능로봇의 설계 및 제작 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원리, 로봇에 필요한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자동화기기 프로그램, 로봇제어용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한다. 자격

증으로는 로봇기구개발 산업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산업기사, 로봇제어하드웨어 개발 산업기사, 3D프린터개발 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임베디드 산업기사 등을 딸 수 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IoT 및 로봇 분야와 자동화시스템제어 분야로 취업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융합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친환경 에너지 등과 같은 여러 IT 융합 산업들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배운다.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한다. 정보처

리산업기사, 웹프로그래머자격인증시험(WPC), 자바프로그래머(OCJP)등의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컴퓨터, 정보통신, 전자 등 IT 관련 기업 프로그래머와 금융, 자동차, 항공, 공공기관 등 비 IT 산업의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진출 가능하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스트레스 프리 '힐링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문득,
힘들다 느껴질 때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 개인상담(진로 및 심리), 집단상담, 심리검사
| 명상실 이용 가능(음악, 그림, 호흡, 신체이완, 만다라)
|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방학 중 10시~15시)

문의 | 학생상담지원센터 031-880-5567

